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도우심 제목 : 주께서 하시리라 성경:창세기 22장
1-14절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솥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솥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22:1-14)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당히 난해한 제목이다.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설명되지 않을 때 쉽게 운명론을 믿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기 좋아하고, 거짓말을 잘 활용한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리라는 말도 신앙고백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운명론이나, 책임회피용이나, 방관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남일이 아닌, 자기의 일이라면 그는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한다.

세상은 분명히 개인이든 나라든 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성공할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성공과 실패는 예측가능할 뿐, 운명지워지지 않았다.

또는 성공의 확률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성공의 확률이 10%라는 말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뜻이 아니다. 계산 해 보니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만약 계산에 돌발 변수까지 적용한다면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그 돌발변수가 하나님의 손길, 또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그렇다면 성공확률 10%는 그리 작은 편은 아니다.

그래도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렇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점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운행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더더욱 운명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며, 사유하시는 분이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결정하시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그 뜻을 바꾸시고, 이미 계획해 놓으신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으시다. 이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

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말이나 태도들을 유심히 관찰하신 다음에 그 무한하신 지혜로 계획을 수정하신다는 뜻이다. 계획이 수정되었다고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크게 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뜻 없이 무릎 꿇는 자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에게도 큰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핑계대고, 원망하고, 신체타령 하는 자들은 방치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그래 일단 나도 할 일이 너무 많아 바쁘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게’ 하신다. 그리고 검토해 보실때는 연체료나 벌금, 세금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계산하신 다음 지불을 요청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뒤치다꺼리는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은 119 구급대원도 아니시다. 우리가 소리지르면 즉각 대령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사랑의 한없이 크시고, 자비가 무궁하시고, 인내심이 너무 크셔서 우리를 향한 심판이 매우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실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이 있는 자에게 관심하신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관심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일하는 자에게 관심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하고, 지혜를 구하며, 실험하며, 실패하나 다시 수정하여 도전하며, 잘못을 회개하며, 겸손히 부탁하며,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는 자에게 관심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관심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바로 이런 자들의 신앙고백이 곧 ‘주께서 하시리라’다.

계으름뱅이나, 말만 많이 하고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계산만 하는 자들이나, 핑계거리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은 스스로가 먼저 돕는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 전능하심을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기쁨을 삼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는 일찍 일어났다. 순종할 때 꾸물대지 않았다.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갔다. 주께서 나무를 준비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무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땅히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갔다.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일러준 곳으로 가지 않는다. 특히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 (김의신 박사의 이야기. 미국 유명 암병원 MD앤더슨 종신교수. 의사들이 오히려 말 듣지 않는다.)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였다. 일을 가늠하고 일에 몰두하고, 가능한 변화나 위험요소들을 제거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방해하듯이 일을 한다.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방해하려고 한다. 자기도 실패 했으니 다른 사람도 실패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 하였고, 방해되는 것들을 차단하였다.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자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 뱉지 않았다. 그는 예언자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을 것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외아들을 준비하셨다는 고백으로 들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계시적인 것qua,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말투로 자신이 곧 번제물임을 직감했을 것으로 보

인다.

사람의 말에는 어투, 어감이 그 악센트와 음정과 리듬에 담겨있게 마련. 아브라함은 번제를 잊고 온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어린양을 가져오지 않았다.

아마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왜냐면 이삭이 당시 17세 청년으로 충분히 완력으로 아버지의 행동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순순히 붙들린 것은 아버지의 뜻에 공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무작정 산행을 한게 아니라, 번제를 설득하는 일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하시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만족 제목: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할까 말씀:전도서 5장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값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값으라

5 서원하고 값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7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8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9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17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5:1-20)